

박상현의 '맛있는 이야기'



한국의 '일식'은 누구의 음식일까?

세계 어느 나라에 가건 현지에서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음식은 이탈리아 음식이다. 올리브오일, 토마토, 마늘, 소금 그리고 밀가루(듀럼밀)만 있으면 어떻게든 '이탈리아다운 맛'을 구현할 수 있다. 복잡한 조리법이나 특별한 양념 대신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조리법이 수 세기에 걸쳐 발달해 온 맛이다. 반면 복잡한 조리법과 독특한 양념이 필요한 중국 음식은 좀처럼 외국에서 뿌리내리기 어렵다. 그럼에도 전 세계에 퍼져 있다. 이민의 역사가 긴 중국은 일찍부터 세계로 곳곳으로 퍼져나가 '차이나타운'을 형성하고 그들 특유의 유대감과 상인 정신을 발휘해 온갖 식재료의 유통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음식은 철저히 현지화 하는데 노력한 반면 중국 음식은 세계 어디서나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왔다.

중국 음식은 이탈리아 보다도 중국 음식에 가깝다. 된장, 간장, 고추장, 참기름 등 기본 조미료에서 각종 채소류에 이르러까지 다른 나라에서 잘 쓰지 않는 고유한 식재료가 있어야 '한국다운 맛'을 구현할 수 있다. 중국처럼 많은 인구가 중국만큼 다양한 국가에 정착하지 못한 한국 음식은 이런 점에서 어려움을 겪었

다. 한국에서 어렵게 식재료를 운송해 가져나 대채 가능한 유사 식재료를 현지에서 구해야만 했다. 외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교포들 가운데는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재배해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해외에서 먹는 한식은 가격은 비싸고 맛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해외 대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한국 음식점이 몰려있는 미국 LA와 뉴욕의 '코리아타운'이 상징적이다. 교포가 늘어나고 현지인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LA의 경우는 뉴멕시코, 뉴욕의 경우는 뉴저지라는 배후지가 생겼다. 뉴멕시코와 뉴저지에서는 한국 음식에 사용되는 거의 모든 채소가 재배되고 있다. 유품능으로 재배되는 비율도 높다. 두부와 콩나물 공장도 있고 심지어는 된장, 간장, 고추장 등의 발효식품까지 생산한다. 유품 시스템도 완벽하게 구축돼 다양한 신선식품이 하루 이내에 매장에 공급되고 가격 또한 저렴하다. 덕분에 오늘날 미국 LA와 뉴욕에서는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만족도 높은 한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보고 장에서 먹는 것과 다른 음식이 구현

되면서 이를 대하는 미국인들의 태도도 달라졌다.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었던 한국 음식이 재평가되고 있다. LA타임즈와 뉴욕타임즈를 비롯해 미술랭가이드, 자갓서베이 등의 레스토랑 평가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음식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LA와 뉴욕에서 새롭게 불고 있는 한식 붐은 한류의 확산과 함께 미국에서도 완벽하게 구현 가능한 공급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해 뿌리내린 한국 음식이 한미 간의 무역 분쟁이나 정치적 갈등으로 미국 현지에서 외면 받는다면, 이를 지켜보는 우리의 심정은 어떨까?

1876년 부산항이 개방되면서 많은 일본인이 한국에 정착했다. 사람의 이동은 필연적으로 음식의 전파를 수반한다. 일본 음식이 한국에 뿌리 내린 지 족히 한 세기가 지났다. 이를 우리는 '일식'(日食)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일본에는 일식이라는 표현이 없다. 일본은 자신들의 고유한 음식을 일식이라고 하지 않고 '와식'(和食)이라고 한다. 때문에 일본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만족도 높은 한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보고 장에서 먹는 것과 다른 음식이 구현

의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일식집의 인테리어와 분위기는 타자화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그런데 그 일식집에서 나오는 음식의 조리법과 구성 그리고 맛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것은 일본 음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한국 음식에 가깝다. 더 구체적으로는 한국인 조리사와 고객 이 땅에서 함께 구축해온 일본풍의 한국 음식이다. 대부분의 식재료 역시 한국에서 생산된 것들이다. 그래서 한국인에게는 매우 친숙한데 오히려 일본인에게 생경하다. 그 시작은 비록 일본일지언정 한 세기를 지나면서 완벽하게 한국화 되었기 때문이다.

일본 브랜드와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에는 나 역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동참한다. 하지만 그 시작이 일본이었다고 해서 일식집까지 그 범주에 넣는 것에는 반대한다. 순혈주의는 문화적 다양성의 가장 큰 적이다. 음식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 철저하게 사람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때문에 일본풍이라고 해서 이미 한국화된 음식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부정이다. 한국의 '일식'은 당연히 한국의 음식이다.

<맛 칼럼니스트>

社說

'첨단 소재 독립' 선도할 효성 탄소섬유 투자

효성이 오는 2028년까지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탄소섬유 산업에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탄소섬유는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이라는 점에서 이번 투자는 국내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효성은 그제 전북 전주시 효성첨단소재(주) 탄소섬유 공장에서 '신규 투자 협약식'을 열고 향후 10년간 이 같은 투자로 현재 연산 2000t(1개 라인)의 생산 설비를 연산 2만 4000t(10개 라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다. 증설이 마무리되면 효성의 탄소섬유 시장 점유율은 현재 2%(11위)에서 10%로 높아져 '글로벌 톱 3'로 올라서게 된다. 이를 통해 23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 소재의 특정 국

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며 "효성의 대단한 도전과 과감한 실행을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꿈의 소재인 탄소섬유를 더욱 키워 '소재 강국 대한민국' 건설에 한 축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섬유는 철에 비해 무게는 4분의 1, 강도는 10배에 달해 수소차 수소연료탱크 등 첨단 산업에 두루 쓰이는 전략물자지만 일본 의존도가 높다. 이에 효성은 지난 2011년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섬유인 '탄섬'(TANSOME) 개발에 성공해 2013년부터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효성의 탄소섬유 상업화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국내 시장은 국산으로 대체가 가능해졌고 첨단 소재의 독립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탄소섬유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산업의 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 만큼 지속적인 투자로 국가 전략 산업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여름 악취 유발 정화조 청소 대안 없나

수백만 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하수도 문제일 것이다. 특히 분뇨 처리 방식은 도시민의 거주 환경과 직결된다. 선진적인 도시일수록 오·폐수나 하수 처리는 거주하는 도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드러나지 않게 이뤄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광주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최근 광주시 동구 충장파출소 인근 오피스텔에서 한낮에 정화조 정소를 하는 바람에 지나는 사람들이 악취 때문에 코를 막아야 했다. 동구 학동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도 정화조 악취 탓에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동구 구도심 지역에서 정화조 관련 민원이 잇따라 발생하는 까닭은 대부분 정화조를 따로 뒤야 하는 '합류식 하수관'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정화조로 인한 악취 발생과 위생

불량을 우려하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 설치된 총 하수관로 4360km 가운데 38.7%(1685km)가 '합류식 하수관'이다. 광주 5개 구 가운데 동구는 '합류식' 비율이 78.6%로 가장 높다. 다섯 집 가운데 네 집이 일정 기간마다 정화조를 파내야 하는 것이다. 합류식 대신 분뇨를 정화조 없이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즉시 보낼 수 있는 '분류식 하수관'을 설치하려면 2조 8000억 원대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광주시는 추정하고 있다.

주민들이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좋은 도시일 것이다. 악취를 풍기는 도시에서 관광객들도 좋은 인상을 받기란 어렵다. 따라서 광주 구도심 정화조 문제 해결에 지자체가 앞장서야 한다. 광주시는 보다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치밀한 계획 수립으로 구도심에 설치된 '합류식 하수관'을 '분류식 하수관'으로 교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의료칼럼

허리 디스크와 비슷한 척추관 협착증



최진봉 동신대 한방재활의학과 교수

사람의 척추는 40대를 넘어서면 본격적으로 퇴화하기 시작한다. 굽었다 폈다를 거듭하는 가운데 허리는 점차 약해져 미세하게 흔들린다. 흔들리는 허리를 고정시키기 위해 몸은 보정 작용을 하는데, 척추뼈가 뒤틀리라고 인대가 두꺼워지는 것이 그 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신경 통로인 척추관 안쪽으로 불규칙하게 뒤틀린 뼈와 인대가 신경을 누르고 압박하게 되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퇴행성 척추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이다.

평소 허리나 다리에 통증이 있고 구부정한 자세로 걷는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떠올리고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보통 허리 디스크와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이 때 자가 진단을 통해 허리 디스크로 착각을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

서 이미 증세가 심각해진 뒤 병원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조기에 발견할수록 간단한 치료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

전형적인 환자의 유형은 주로 50세 이상에서 수년 동안 요통을 앓았고 하지만 둔한 방산통이 나타나며 마비감, 작열감, 냉감을 느끼기도 한다. 오래 걸으면 통증으로 못 견디면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통증이 경감된다. 진행되면 방광, 직장으로 향하는 신경을 압박해 대소변 장애도 나타날 수 있다. 주로 허리 3-4번 신경과 허리 4-5번 신경에서 흔하다.

특이 증상으로는 매해한 요통이 있고 아침에 경직되며 신경병증성 파행이 나타난다. 파행이란 하지의 통증이나 운동, 보행 등과 관련된 경련 및 이상 감각, 근력 약화 때문에 다리를 지탱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파행 간격은 다양하며 감각 손상은 심하지 않다. 파행이 있어도 간격이 일정하고 감각 손상이 심하면 혈관부전증(동맥폐색성 맥관염)을 의심해야 한다.

다른 특이 증상으로는 허리를 앞으로 굽힐 때보다 뒤로 펼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다. 펼 때에는 척추관이 더 좁아지고 신경 자극이 심해져서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또 허벅지나 종아리, 발끝이 저리거나 당기는 증상이 뒤따르고 활동할수록 증세가 더욱 심해진다는 특징이 있다.

환자의 증상을 토대로 한 신경학적 검사와 문진에서 척추관 협착증의 의심된다면 방사선학적 검사로 확인해야 한다. 단순 방사선 검사로 척추 전방전위증(척추의 몸체가 아래 부분보다 앞으로 밀려나가 있는 것) 및 퇴행성 여부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나 척추관의 좁아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척추 전산화 단층 촬영, 척추 자기공명영상, 척추 조영술 등을 해야 한다. 단순 방사선 검사 및 척추 자기공명영상 촬영으로 추간관(디스크)의 변성과 척추 압박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게 되는데, 특히 척추 전산화 단층 촬영으로 척추관 옆에 위치하는 외측 함오의 협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척추 조영술 상에는 척추 경막강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좁아지거나 양측성으로 좁아져 모래시계 형태를 보이거나 조영제가 완전히 막힌 소견을 볼 수 있으며, 자기공명영

상에서는 압박된 부분이 더욱 잘 나타난다. 경추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단순 경추 방사선 검사 상 전후 간격이 12mm 이하인 경우에 의심을 하게 되고, 전산화 단층 척추 조영술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비교적 통증이 심하지 않은 질환 초기나 다리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주사나 약물, 침치료, 운동 요법, 생활 요법 등 비수술 요법도 가능하다.

한의학에서는 보존적 치료 방법이 비교적 다양하다. 침, 뜸, 부항, 사혈, 약침 등을 통해 통증을 개선하고 근육을 강화시켜 척추 협착증의 근본 원인인 척추 불안정성을 치료하며 추나 요법, 승령 요법 및 감압 요법을 통해 허리에 부하되는 부담을 줄여준다.

척추관 협착증은 노화가 원인이기 때문에 예방이 어렵다. 하지만 평소 허리보다는 무릎을 이용해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 등 허리에 무리를 주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으로 발생률을 낮출 수는 있다. 또 비만일수록 척추관 협착증에 노출될 위험이 높으므로 체중 관리와 음식 섭취 조절 등이 필요하다.

기고

산학간의 아름다운 동행 200회를 맞으며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

지난 196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다. 현장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들이 대학에서 첫 설강한 경영학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해 열심히 주경야독하는 모습을 보던 기억이 난다. 그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CEO들은 피곤함도 잊은 채 캠퍼스로 달려와 신경영 기업을 터득하느라 여념이 없음을 눈여겨보곤 하였다. 이처럼 기업인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 학계에서는 이론과 현장의 실재를 함께 공부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인재를 양성될 수 있었고, 산업계에서는 경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마다 갖는 이기주의 때문에 진정한 산학협동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

한 필자는 지역 대학과 지역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산학협동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02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 '한국산학협동연구원'이라는 명칭으로 사단법인 등록을 마쳤다. 이듬해 1월부터 교수들과 기업인들이 모여 함께 공부하는 산학협동 포럼을 시작한 이후, 이번 달에 딱 200회를 맞게 되니 감회가 참으로 새롭다.

그동안 한 달도 거르지 않았으며,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아침이면 교수들과 기업 임직원들은 여김없이 나와서 국내외 명사들의 강의를 사이 좋게 앉아 들곤 하였다. 어느 겨울엔가는 간밤에 내린 폭설로 다음 날 아침 학습이 힘들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회원들이 나와 포럼을 이어 갈 수 있었다. 바쁜 아침이지만, 새로운 경영 정보는 물론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잡는 산학협동 포럼은 시간가는 줄 모르는 소중한 미팅이었다. 아쉬운 나머지 산학간의 만남은 강의실을 떠나 산에서도 이루어졌다. 며칠 전 한국산학협동연구원(KIURI)의 애칭인 키우리 산행 200회를 대한민국 명산 중의 명산인 지리산에서 가졌다. 아홉 마리의 용이 승천했다는 구룡폭포에서 키우리가 용이 되는 날을

꿈꾸면서 말이다.

그동안 국내의 산은 물론, 일 년에 한 번씩 해외 산행도 마다하지 않았다. 일본의 후지산, 중국의 황산,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산 등 헤아릴 수 없다. 언젠가 4000 미터 정상에 앞두고 밑에서 투숙했는데, 어쩌나 추웠던지 내 잠옷까지 빌려 입을 사장님은 지금도 만날 때마다 옛 추억을 이야기 하곤 한다. 함께 걷다 길이 좁아지면 앞서거나 뒤서거나 걸었다. 끊이지 않는 대화에서 산학간의 아름다운 동행은 이렇게 이어져 왔다. 산학간의 쉬지 않는 이야기는 불운 이웃을 돕는 키우리 봉사회에서, 건강 증진을 위한 키우리골프회에서, 그리고 회원들이 선택한 도시를 매달 읽는 키우리 독서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산학간의 아름다운 동행은 매달 '산학협동 인포'라는 제호를 달고 우리들이 소중한 기록을 배달해 왔다. 회원들은 늘상 머리맡에 두고 읽고 싶어 온라인상의 웹진도 거부하고 인쇄된 책자를 받고자 했다.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발행해 온 이 잡지는 마침내 이번 8월호 지령 200호를 맞이하였다.

회원들이 즐겨 읽도록 모두가 함께 만드는 이 잡지는 달마다 보고 싶어 기다려진다. 첫 호부터 참여하고 있는 산학만평, 창업 이야기, 세무 상식, 키우리산악회를 비롯한 4개 동아리의 활동상이 고스란히 담겨있기에 더더욱 보고 싶어 하고 있다. 또한 교수들이 기업 주치의(business doctor) 로 가까이 참여하는 1사 1교수 프로그램의 현장 경영 사례들이 생생하게 소개돼 타산지석의 교훈도 얻을 수 있어 좋다.

한편, 달빛동맹의 모델이 된 대구 산학 연구원의 16년째 교류는 해를 거듭할수록 정이 두터워져 가고 있다. 봄에는 산에서, 가을에는 산업 현장에서 번갈아가며 만나다 보니 거리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영호남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커지다 보니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공감대 형성이 커져 가고 있다.

필자가 그동안 산학간의 동행을 통해 얻은 결론은 이렇다. 누가 뭐래도 우리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은 산학협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산학협동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은 바로 우리가 부지런히 완수해 나가야 할 미션이 아닐까 싶다.

無等鼓

'예향'이라는 광주가 고층사각형 건축물로 가득차고 있다. 올라가는 것은 아파트며, 사라지는 것은 광주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택, 상가, 학교, 공원, 공장 등이 있었던 자리, 설령 그것이 광주의 역사, 광주의 문화, 광주의 정체성 등을 내포하고 있어도 순식간에 없어지고 있다. 지난 2015년 6월 말 사용 중인 아파트가 998개 단지 37만 382호에서, 4년이 지난 올해 6월 말에는 1097개 단지 41만 2623호로 급증했다.

사실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다. 미국, 유럽 등에서 주요한 개인 공간을 공유해야 하는 아파트가 대표적인 주거 공간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심 내 단독 주택 상당수가 너무 남아 살기에 불편하고 기반 시설과 편의 시설도 미비해 아파트 인기가 급상승했다. 거기에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정부 정책이 계속 이어지면서 아파트가 '부'를 상징하고, 그것을 부풀려 주는 '상풍'이 더해졌다.

아파트 단지는 특정 집단이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폐쇄성

을 지니고 있다. 상업시설, 공원, 광장, 공공시설 등과는 공간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 '상풍'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에 대해 애착이 상대적으로 적고, 거주지 지속가능성이 낮다 보니 공동체 의식이 미약하다. 주변인들과의 관계 맺기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도시가 갈수록 삭막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리나라에서의 개발은 일제 강점기에 본격화됐다. 근대화와 도시화라는 미명 아래 일제 강점기 본토에서 대거 이주한 일본인 대부분은 금전을 목적으로 식민지 조선을 찾았다. 예나 지금이나 쉽게 부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토지를 개발해 그 수익을 독식하는 것이었으며, 일본인들은 식민지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부를 쟁했다. 만일 100년 전 건축·토목 기술이 현재와 같았다면, 광주는 이미 아파트 숲으로 뒤덮였을 것이다. '반일'을 넘어 '극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도시 공간에서 일제와 같은 개발 방식을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유현성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체 육 부 220-0633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